



# “나이에 맞는 풋풋한 감성 보여주고파”

### ‘심기일전’ 위너, 4인 체제 전환 새 앨범 ‘페이트 넘버 포’ 로 복귀

그룹 ‘위너’(강승윤·송민호·김진우·이승훈)가 새 앨범 ‘페이트 넘버 포’(Fate Number For)를 들고 복귀했다. 강승윤은 “안주하지 않았다. 공백기 동안 멤버들 모두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활동에서 발전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위너’는 반복해서 “심기일전 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최근 큰 부진을 겪었다.

데뷔 전부터 팬들에게 팀의 상징으로 불리며 메인 보컬에 곡 작업까지 맡았던 남태현이 탈퇴하면서 급작스럽게 4인 체제로 전환해야 했다.

2014년 8월 발표한 데뷔 앨범 2014 S/S는 크게 주목받았지만, 1년 5개월 뒤 내놓은 ‘엑시트’(EXT:IT)는 별다

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위너’에게 위기라는 단어가 줄곧 따라붙었다.

“저희도 (남태현의) 빈자리를 느끼고 팬도 느껴요. 그런 부분을 만회하려고 이번 곡들의 완성도를 더 높이려고 했어요. 불안감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저희 모두 더 좋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자신있어요.”

‘위너’는 그러면서 “성적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이번에는 재밌고 행복하게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

새 앨범 ‘페이트 넘버 포’에는 릴리 릴리(REALLY REALLY)와 풀(FOOL) 두 곡이 담겼다. 쉽게 구분하면 릴리 릴리는 댄스, 풀은 발라드다.

눈길을 끄는 건 타이틀 릴리 릴리다. ‘공허해’ 등 이전에 ‘위너’가 선보였던

곡들이 다소 우울하고, 마이너한 감성을 담았다면, 릴리 릴리는 듣자마자 흥이 나는 노래다. 최근 유행하는 장르인 ‘트로피컬 하우스’(Tropical House)를 적극 끌어들이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들은 “그동안 밝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다. 젊은 나이에 맞는 풋풋한 감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청량감 넘치는 멜로디와 함께 “널 좋아해”, “내 맘을 받아줘”, “넌 나 어때” 등 가볍고 직관적인 가사도 눈에 띈다. “앨범 준비하면서 두 곡 만들었어요. 릴리 릴리가 처음 만든 곡이고 풀이 두 번째 만든 곡이죠. 두 곡 모두 반응이 좋았어요. 멤버들도 좋아했고, 회사에서도 만족했어요. 일사단위로 진행됐죠.”

이번 곡은 ‘위너’의 춤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다.

‘위너’는 “릴리 릴리에서는 자유롭게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 부분에는 ‘칼 군무’도 준비돼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달라”고 했다.

이번 앨범 제목은 ‘페이트 넘버 포’다. ‘포’를 Four가 아닌 For로 쓰긴 했지만, 4인 체제를 상징하는 숫자 4를 의미하기도 한다.

새 노래 또한 4월4일 4시에 발표했다. “중의적인 의미로 봐주세요. 4인 체제가 됐으니까 운명의 숫자 4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For에는 ‘항해하다’ ‘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4인 체제를 위해서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시스

### 김수현, 아이유 신곡 뮤비 출연

수현(29)이 가수 아이유(24·이지은) 새 노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

5일 두 사람의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키이스트에 따르면, 김수현은 최근 아이유의 정규 4집 앨범에 수록될 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다.

두 사람은 2011년 드라마 ‘드림하이’, 2015년 ‘프로듀사’에 함께 출연했다.

김수현 측 관계자는 “그때 인연이 이어져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샘플이 작곡한 곡으로 알려진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달 24일 새 노래 ‘밤편지’를 내렸다. 오는 7일에는 오혁과 함께한 ‘사랑이 짝’을 내놓는다. 이어 아이유의 정규 4집 앨범은 21일 발표된다.



/뉴시스

### 배성우, 정우성·하정우와 한식구 아티스트컴퍼니와 전속 계약 체결

배우 배성우(45)가 아티스트컴퍼니와 일한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최근 전속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리며, “연극과 영화를 오가며 오랜 시간 곳곳이 자신의 길을 걸어온 특이한 배우 배성우와 함께 하게 돼 든든하고 기쁘다”고 했다.

소속사는 “그를 형성하는 수식어는 아직도 무한히 남아 있다. 배성우의 진가가 더욱 빛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우는 영화 ‘더 킹’(2017) ‘사랑하기 때문에’(2017) ‘내부자들’(2015) ‘베테랑’(2015) 등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 받았다.

한편 아티스트컴퍼니에는 정우성·이정재·하정우·염정아·고아라·김의성 등이 소속돼 있다.



/뉴시스

# 영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모태펀드 관리주체 정부로 바뀌야”

### “박근혜정권이 자본 이용 문화영화계 사전검열 통제 사실 만천하에 드러나”

영화계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영화계를 지원하는 모태펀드를 통한 검열과 통제가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모태펀드의 계정 관리주체를 정부로 이관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영화산업 블랙리스트 시행기관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의 범죄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친노(親盧) 계열 대기업(CI·롯데) 문

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을 독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의 임원 교체’를 통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정권이 자본을 이용해 문화영화계를 사전검열하고 통제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주도해 한국벤처투자의 임원 및 전문위원 등을 임명했고 이들은 정권이 불편해한 민한 작품의 투자를 거부 또는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

태펀드 관련 인사 개입을 통해 사전검열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모태펀드에서 편당 평균적으로 5~10억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정권이 선호하는 영화에는 2개 이상의 자펀드를 활용해 30~4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통한 ‘의도적이고 비대칭적 투자를 통한 산업 통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수익률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제작자분위에 관여해 정권에 불편한 영화를 기획하거나 연출한 제작사와 감독의

작품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유일한 독립 영화펀드인 산수벤처스를 만기 2년을 앞두고 돌연 청산했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곳에서 책임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모태펀드 계정 관리주체를 한국벤처투자에서 각 행정부처로의 이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벤처투자 내 상근 전문위원과 각 계경별 외부 전문가 풀이 2015년에 신설되고 올해 2월에 폐지된 전 과정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의 문화영화계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에 나서실 것도 요구했다.

/뉴시스

###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 네티즌 법적 대응

배우 문채원(31)이 온라인에서 남자친구를 사칭하는 네티즌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문채원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5일 “문채원의 남자친구 구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상에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한 네티즌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무엑터스는 “그동안 게재하는 글들에 대해 모두 모니터링 해왔지만, 너무도 허무맹랑해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참아왔다.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고, 불쾌감을 넘어서는 글들이 게재돼 해당 네티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